



고대 안산병원, 메르스 철통 방어!



‘지역과 함께 발빠른 초동대처’, 촘촘한 방역망과 불안해소 주력
병원 내 감염 원천차단, ‘국민안심병원’ 인증

고대 안산병원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메르스 확산방지와 재원환자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메르스의 확산이 의료기관내 감염이 주경로라는 점에서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대 안산병원의 완벽한 감염관리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잠재적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중삼중으로 메르스 관리와 병원방역체계를 철저히 점검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대 안산병원은 메르스 발병과 동시에 병원 안 메르스 확산방지 TFT팀을 구성해 중동지역 방문, 확진의료기관 방문 환자 내원시 감염관리실 연락 등 의심환자 내원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일회용 마스크, 안면 보호구, 손 소독제 등 관련 물품 등을 확보해 고객접점부서와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또한 안산병원 주관으로 안산시장, 단원보건소장 등 지역의 병원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 내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확산에 대한 대처방안을 놓고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는 등 지역의료체계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또한 안산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안산지역에 있는 모든 병·의원에서 메르스 발생 또는 의심환자 발생 시 고대 안산병원과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교직원들에게도 메르스에 관련하여 임상적 특성, 진단과 치료, 메르스의 현황과 대응지침 등에 대한 정보와 의심환자가 내원했을 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메르스가 병원 안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관 앞 선별 진료소와 응급실 뒤편 임시진료소,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소를 별도로 설치했으며,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시 차단막을 설치하여 격리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 5대를 준비했다. 선별진료소는 간호부 수간호사와 응급실 간호사가 비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임시 진료소에서는 감염내과, 응급의학과, 감염관리실에서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검사를 돕고 있다. 차단막이 설치된 격리시설에서는 감염내과 의료진과 이 활약하고 있으며, 안전요원실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메르스 의심환자 선별과 방문자의 감염관리를 위해 출입구를 통제하고 적외선 체열측정기를 설치했다. 또 환자 면회제한 방침으로 출입허가증을 발급하는 등 병원 내의 감염 및 확산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장기화된 메르스 확산에 따라 지난 6월 17일부터는 병원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 및 보호자, 방문객에게 자가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예방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

How to contact 고대안산병원

■ 전화예약

진료예약센터 : 1577-7516

예약시간 : 평일 08:00 ~ 18:00, 토요일 08:00 ~: 0103

■ 인터넷예약

홈페이지(ansan.kum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

※예약일정이 확정되면 진료일 전날 고객님의 핸드폰으로 SMS문자가 발송됩니다



고대병원 모바일웹 접속

Contents

2p

개원 30주년 특집

지역 유일의 대학병원 설립



3p

개원 30주년 특집

지역거점병원으로 역할 정립



4p

개원 30주년 특집

지역클러스터 기반 연구혁신병원



5p

개원 30주년 특집

지역사회를 보듬는 지역 대표 병원



6p

개원 30주년 기념 행사

지역과 함께한 인술의 30년



7p

개원 30주년 기념 행사

다양한 행사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고대 안산병원, 개원 30주년 행복의 가치, 나눔의 가치, 지역주민과 같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의료 취약지역이었던 경기도 안산에 인술의 횃불을 밝히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자리 잡은 지 30년, 1985년 100병상 규모로 개원한 고대 안산병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 순간 도전과 열정의 정신을 불태우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경기 서남부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성장했고, 두 번의 증축을 통해 830병상 규모의 위용을 갖췄다.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돼 국내 최고 병원 대열에 합류했으며, 2015년 다시 한 번 지정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서해안을 넘어 글로벌 선도병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 의료불모지였던 안산, 인술 펼치기 위해 지역 최초·유일의 대학병원 설립

고대 안산병원 개원은 불모의 땅에 고대의 열정과 도전의 씨를 뿌려 의료취약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사회 병원을 설립한다는, 태생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품고 시작되었는데, 당시 공업도시로써 개발 중이던 안산지역이 이러한 조건에 적격이었다. 그러나 당시 빈약한 국내 경제 상황에서 건물뿐 아니라 신규 의료장비에까지 투자해야 하는 병원 신축을 위한 재원 마련은 결코 쉽지 않았고, 병원 설립에 난항을 겪었다. 국내에서 재원확보가 힘들어지자 해외로 눈을 돌렸고, 우여곡절 끝에 독일 서독재건은행(KFW)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해 병원 설립의 재원을 마련했다. 1985년 5월, 고대 안산병원은 내과·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산부인과·소아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방사선과·마취과·임상병리과·치과·건강관리과 등 15개 진료과와 100병상 규모의 개원을 통해 역사적인 ‘고대 병원 안산시대’를 열었다.

○ 30년간 지역과 함께 발전해온 성장 파트너

개원 당시 안산 지역은 농어촌 복합 지역에 공단 배후 도시로 자체적인 도시 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인지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고대 안산병원의 개원은 단비 같은 존재였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은 의료 수요가 커서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병원 개원과 동시에 안산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85년 개원 당시 안산 지역의 인구는 9만6천여 명에 머물러 있었지만, 개발과 성장을 거듭하며 1987년에는 인구가 16만 명에 이르렀다. 지역의 인구 증가에 대응해 고대 안산병원은 1987년 간호사 기숙사로 사용하던 병원 2층을 개보수해 50병상을 증설했고, 금정-안산 간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면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이 이뤄진 1988년에는 병상을 300병상 규모로 늘렸다.

고대 안산병원은 계속되는 안산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1998년 본관을 신축 개원하여 재활의학과·흉부외과·성형외과·병리과·응급의학과 등을 새롭게 개소하고 600병상 규모의 증축을 이뤄내 종합병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것은 IMF라는 거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이룬 노력의 결과이자 고대 안산병원의 역사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이었기에 더욱 큰 의미를 가졌다. 이러한 본관 신축 개원의 토대를 기반으로 고대 안산병원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응급의료와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전문의료기관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았고, 연구혁신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2012년 1월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지역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승격하면서 그 역할은 확대됐지만, 100여 만에 육박하는 안산·시흥 지역주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14년 4월 기존 지상 9개 층으로 구성된 본관건물에 3개 층을 증축해 830병상 규모를 갖췄다. 이는 병실과 외래 진료공간 확대로 이어져 환자들의 쾌적한 병동생활은 물론 신속하고 편리한 입·퇴원이 가능하게 했으며,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확대의 시발점이 됐다. 또한 점차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외래 재배치로 ‘원스톱 진료 공간’을 마련했다.

2014년에는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 ‘응급의료전진대회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며,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경기 서남부 지역의 대표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

인프라에 대대적 투자로 ‘지역거점병원’ 으로서 역할 정립

외래재배치, 질환별 전문센터화 등 환자중심 의료 서비스 제공



고대 안산병원은 개원 당시부터 고려대학교의 구국이념과 정부의 의료복지 정책, 서독재건은행의 경제개발 지원이 맞물려 지역 환경에 걸맞은 특성화 센터 개설 등을 통한 ‘지역거점병원’ 을 지향해 왔다.

특히 본관 신축 이후 반월, 시화공단이 밀집한 공단 배후도시라는 점과 수인산업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등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라는 지역특성에 맞게 직업환경의학센터, 재활의학센터, 응급의료센터를 특성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및 산업 현장의 재해와 사고가 빈번해진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1년 4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 센터로도 선정되어, 응급의료센터, 내·외과 중환자실과 더불어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명실상부한 지역 중심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최근에는 첨단 치료를 위한 특성화센터를 추가로 개소와 외래재배치 등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 및 첨단 장비 확충에 노력했다. 이는 곧바로 의료 서비스와 직결되어 환자들에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내·외과 협진을 통한 진단과 치료, 전문성 높은 암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암 치료 등 맞춤형 진료는 암환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2009년 도입한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 리니악과 2011년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지역 최초 암 치료기 래피드아크, 부작용과 합병증이 없는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도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발표한 암 적정성 평가에서 대장암, 유방암, 폐암분야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암 치료 중심 병원으로 그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14년 11월 암센터를 개소하고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진과 의료장비,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진단-검사-치료-재활 원스톱서비스’, ‘다학제 통합진료’ 등 암환자를 위한 집중·통합치료를 제공하여 안산, 시흥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암 환자들이 가까에서 최고수준의 암 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암센터장 손길수 교수는 “진단에서 치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환자맞춤진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암센터의 강점” 라고 설명했다.

소화기센터는 소화기 질환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원스톱 진료를 선보이고 있다. 기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취담도내시경과 함께 이중풍선 소장내시경, 캡

술 내시경, 내시경 초음파 등 최첨단 장비를 완비해 구강에서 항문까지 모든 소화관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선종, 조기암 등은 내시경 치료를 통해 말기 암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적 시술에 힘쓰고 있다. 한편, 위장관에서 발생한 조기 암은 최신 치료법인 내시경점막하박리술을 이용해 외과적 수술 없이 내시경 시술만으로도 암 완치가 가능하다. 점막에 국한돼 있는 조기 위암과 조기 대장암도 내시경을 이용해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만성 질환자나 노인 등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심혈관센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뇌혈관질환 질환에 대해 심평원에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는 등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24시간 대비체계를 갖춘 심혈관센터는 환자가 내원한 당일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관상동맥조영술이 필요한 환자는 당일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협심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진료는 골든타임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인데, 고대 안산병원에서는 심장혈관이 막힌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심평원 권장 치료시간인 ‘90분 이내’ 보다 빠르게 치료를 진행한다. 심장질환 등으로 실신하거나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응급당직의가 해당 환자의 심전도 결과를 담당 의료진에게 전송해 시술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는 것은 물론, 응급 심혈관촬영 등 논스톱 응급치료시스템을 통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있다.

고대 안산병원 장기이식센터는 다수의 간 이식, 신장 이식뿐 아니라 심장 이식 등 다양한 이식수술에 성공해 만성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최근엔 혈액형이 적합하지 않은 간 이식도 성공한 바 있으며, 체계적인 협진을 통해 심폐 동시 이식 등 다장기 이식도 진행한다. 다장기 이식이 필요한 경우 신체의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어 다른 장기까지 나빠지기 전 조기 이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장기 이식 분야에서는 치료 노하우와 최첨단 병원 시스템 외에도 이식 수술 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조화를 이루는 것 또한 중요한데, 고대 안산병원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소화기내과, 신장내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여러 진료과 사이에 체계적이고 정확한 협진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환자는 수술 후에도 이식받은 장기에 거부반응이 생기지 않았는지, 악화되진 않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다. 🏥

지역클러스터 기반의 융·복합연구를 선도하는 '연구혁신병원'

풍부한 연구 기반 바탕으로 보건의료기술 발전 위해 노력



고대 안산병원은 의과학연구소 개소를 시작으로 인체유래물은행을 비롯하여 통합임상시험센터, 인간유전체연구소, 난치성질환중개연구소, 노인건강연구소, 단원재난의학센터, 통일한국 보건의학 연구소와 첨단임상의료장비와 실험동물시설 등의 풍부한 연구 기반을 갖추어 병원 내 지속 가능한 연구 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인천보호관찰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지역 산·학·연과의 MOU체결을 통하여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신약후보물질 개발, 산·학·연 연계 통합 의료기기 분야 융복합 연구 및 영상진단기기, S/W연구개발 등에 힘쓰고 있다.

통합임상시험센터는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임상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상의 연구환경을 제공하여 임상연구의 질적 향상 및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고대 안산병원의 임상연구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연구중심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체유래물은행은 연구용 인체자원 수집, 분양, 폐기 및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특화된 진료분야에 관련된 자원수집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인체자원을 효율적 관리하고, 인간의 질병예방과 치료법 개발을 통해 의생명과학발전에 토대가 되도록 기여한다.


인간유전체연구소는 질병관리본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대단위 코호트를 중 하나인 안산코호트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당뇨병, 고혈압, 비만, 골다공증,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등의 만성질환과 관련한 보건·생체 지표를 개발하고, 주요 질환 발생과 관련된 한국인 특이적인 환경·유전적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있다.

난치성질환중개연구소는 희귀, 난치성 질환의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난치성 질환의 병인 및 치료법에 관련된 기초 및 임상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학제간 연구 및 국내·외 학술교류 융합 중개연구를 통해 난치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노인건강연구소는 노인 질환에 대한 진단 기술 개발, 조기 발견, 예방, 교육 프로그램 및 치료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에 힘쓰고 있다.

단원 범국가재난의학연구소는 세월호 사태 등 재난의료 거점 의료기관 역할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적 의료 및 대응 체계 관리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재난의학분야 발전과 재난의학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한국 보건의학 연구소는 통일 전후 의료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확보 및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위해 설립됐으며, 기초 연구를 토대로 하여 탈북의 전문 교육기관 지정을 최종 목표로 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유일의 연구혁신 대학병원으로서 안산사이언스밸리(ASV)의 정부출연연구소 및 보건의료기술(HT) 관련기업,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고대 세종캠퍼스 과기대, 약대 등 산·학·연 기관들과 연계하여 보건의료기술 R&D 광역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고대 안산병원은 임상진료와 기초 및 임상연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혁신형 첨단임상진료센터' 와 다기관협력 연구를 위한 산·학·연·병 벤처 및 융합 연구 플랫폼인 '산·학·연·병 융합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클러스터 기반의 '연구혁신병원' 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를 보듬는 '지역 대표 병원'

매년 20여억원 치료비지원, 의료봉사, 나눔 및 사회공헌활동 통해 지역발전 기여



고대 안산병원은 지난 30년 동안 지역거점병원답게 진료비 지원, 의료봉사 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해왔다.

개원 이래 계속된 저소득층 환자 대상 진료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800여 명의 환자에게 약 22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997년 이래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월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는 나눔문화인 '끝전성금' 모금을 통해 연 2회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쉼터인 '코시안의 집' 방문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과 후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등 지역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화성지역, 사할린 고향마을, 단원보 건소 원곡지소 등 안산 거주 외국인 들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 전달을 위해 다양한 건강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음악회, 마술공연 등과 같은 문화행사와 더불어 보건의료분야 직군 중사를 꿈꾸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와 활발한 상호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공헌 실적

진료비 지원 실적

연도	지원액 (백만원)
FY2007	4,972
FY2008	1,307,575,541
FY2009	1,517,405,110
FY2010	1,536,532,110
FY2011	1,404,234,000
FY2012	1,508,908,740
FY2013	17,000
FY2014	22,000

물품지원

고대안산병원 교직원 월급의 1천 원 미만 금액을 기부하는 나눔문화로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연 2회 연선시 저소득가정을 후원하고 있다.

- 1997-2009: 연선시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기부,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10: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11: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12: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13: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14~: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사회공헌 실적

- 1997년: 나눔문화 시작,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1998년: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1999년: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00년: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01년: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02년: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03년: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04년: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05년: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06년: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07년: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08년: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09년: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10년: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11년: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12년: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13년: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14년: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 2015년: 후원금 지원, 후원금 지원

해외원자 수송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한 인술의 30년’ 고대 안산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성료



고대 안산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이 지난 5월 14일 오후 4시 본관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 김우경 의무부총장, 구범환 전 의료원장을 비롯해 제종길 안산시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윤신 지원장, 안산시 단원구갑 김명연 국회의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이재성 부총장 등이 참석해 고대 안산병원의 개원 30주년을 축하했다.

뿐만 아니라 안산병원 30년 역사의 산증인인 조재홍, 최재현, 이상우 전 안산병원장과 노영무, 이갑노, 이인성 명예교수, 퇴직교직원들도 자리를 함께해 기념식을 더욱 빛냈다.




최병민 진료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내빈소개, 30주년 기념 슬라이드 상영, 연혁보고, 기념사, 증축건물증정, 교직원표창, 만찬으로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안산병원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환담을 나눴다.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1985년 의료 취약지역인 안산에 100병상 규모로 출발한 고대 안산병원은 30년이 지난 오늘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잡았다”며 “30년의 찬란한 역사를 일궈온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대 안산병원이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고대 안산병원은 1980년대 중반 대규모 공업단지 권역에 위치하여 산업화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의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대표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의료원에서 가장 젊은 고대 안산병원이 패기와 열정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첨병으로 전진해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우경 의무부총장은 “지역유일의 상급종합의료기관인 고대 안산병원은 인술의 실천과 교육·연구·진료 3대 핵심분야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안산을 넘어 서해안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발돋움 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제2의 도약을 이루는 고대 안산병원의 성장을 위해 고대의료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상훈 병원장은 “고대 안산병원이 지난 30년간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지역거점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30여 년간의 가파른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300년을 내다보는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개원 30주년 기념 지역사회 미혼남녀 만남의 장 주선

‘선남선녀 만남의 장 · Solo 선남선녀! Couple 백년해로!’ 개최




고대 안산병원이 지역사회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고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개원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5일 고잔동 GD컨벤션에서 지역사회 미혼 남녀가 참석한 가운데 ‘선남선녀 만남의 장 · Solo 선남선녀! Couple 백년해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고대 안산병원이 주최하고 안산시청, GD컨벤션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미혼남녀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고대 안산병원, 안산시청,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안산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200여 명의 미혼남녀가 참석했다.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된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고 최종 선택에서 22쌍이 인연을 맺어 높은 성공율을 보였다.

차상훈 병원장은 인사말에서 “결혼율이 사상 최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위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 며 “이번 자리를 계기로 참가자들 가운데 많은 인연이 맺어져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고 말했다. 

사랑으로 한 걸음! 희망으로 다 함께!

자선기금마련 걷기대회 개최

고대 안산병원이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지난 5월 16일 안산시 상록구 스피드웨이 앞 도로에서 ‘제1회 자선기금마련 걷기대회 - 사랑으로 한걸음! 희망으로 다 함께!’ 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고대 안산병원이 주최하고 안산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의 나눔문화 및 생활 속 운동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리로 고대 안산병원 교직원 을 비롯한 안산시민 65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 중에는 안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90여명과 개원 당시 고대 안산병원 출생자를 초청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총 5km의 코스를 걸으며 한데 어울



려 주변 경관을 즐겼고, 함께 마련된 건강킥플즐넘기, 30주년 앰블럼 타투 그리기, 북북북 룰렛 돌리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기며 축제분위기를 만끽했다.

참가자 완보 시 고대 안산병원에서 1인당 10,000원씩 자동기부하는 이번 걷기대회는 참가자 모두가 완보했고, 걷기대회 중 판매한 ‘사랑의 막걸리’ 수익금을 더해 자선기금을 마련했다. 마련된

자선기금은 다문화 가정 및 사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차상훈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고대 안산병원의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고대 안산병원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사진으로 보는 고대 안산병원 30년



1983년 9월 17일
고대 반월병원 기공식



1985년 5월 6일
고대 반월병원 개원식



2005년 4월 15일
개원 20주년 단체사진



1998년 9월 1일
고대 안산병원 증축 개원식



2012년 10월 11일
증축기공식 시삽



2014년 7월 9일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 수상



2015년 현재
고대 안산병원 야경



2014년 12월 23일
상급종합병원 지정서 수여식